

『유마경』의 정토사상과 정토수행의 실천*

장성우** · 장병한***

동국대학교 · 영산대학교

【요약】

『유마경』의 정토사상은 중생들이 사는 사바세계에 정토를 구현하려는 현실적인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마경』에는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유심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실천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유마거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되는 등 다른 원인들로 타방정토가 서술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토를 구현하는 수행과 실천인 정토수행의 내용에는 초기불교 이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마경』의 정토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유마경』의 정토수행은 대승적 수행으로서 모든 중생을 정토로 이끌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교화 방법을 설고 있다. 또한 『유마경』의 정토수행은 무엇보다도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은 모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뿐 아니라 곧은 마음으로 중생에게 술선수법을 보여서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어 정토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 『유마경』, 정토사상, 정토수행, 깨달음, 교화방법, 곧은 마음

* 이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국대학교, 주저자, 371008@naver.com

***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공동저자, jbh0724@ysu.ac.kr

I. 서론

불교의 이상사회를 의미하는 정토(淨土)의 종류는 교리와 사상의 발전과 함께 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토라는 용어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정화된 땅’이라는 명사적 의미와 ‘국토를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불국토(佛國土, 범어(梵語) Buddhakṣetra)의 의미도 ‘깨달음을 증득한 부처님이 사는 청정한 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미혹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출현하는 미혹한 세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¹⁾

정토를 분류하는 견해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 수나라의 천태지의(天台智顗) 대사는 대승의 공관사상을 바탕으로 정토를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사는 세계인 범성동거토(凡聖同居土)로 보았으며, 불국토(佛國土) 가운데 하위의 세계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대 일본의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暎)는 타방(他方)정토, 영장(靈場)정토, 유심(唯心)정토, 범신론(汎神論)적 정토로 정토를 구분하였으며, 다무라 요시로오(田村芳朗)는 정토를 상적광토(常寂光土), 정불국토(淨佛國土), 내세정토(來世淨土)로 구분하였다.²⁾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정토 사상이 발전하였는데, 정토사상이 발전하고 염불수행이 확산되면서 점차적으로 정토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사상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그러나 초기대승경전인 『유마경』(維摩經)³⁾은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心淨佛土淨]⁴⁾고 설하고 있으며, 정토는 현실 속에서 건설할 수 있다는 사상을 그 근저에 두고 있다. 이러한 유마경 정토사상의 현실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되곤 하였는데, 『유마경』의 실천적인 사상을 강조한 연구⁵⁾가 있었으며, 마음을 맑혀가는 것이 정토라는 유심론적 정토와 수행이 바로 정토라는 수행론적 정토로 『유마경』의 정토 사상을 정리하면서, 『유마경』의 사회적 실천을 밝힌 연구⁶⁾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유마경』의 실천적 성격에 대한 다수의 연구⁷⁾가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

1) 츠보이 슌에이(坪井俊暎) 저, 한보광 역, 『淨土教概論』(서울:弘法院 1993), 16-17쪽.

2) 원영상, 「유마경과 정토, 그리고 현대불교」 『韓國佛敎學』 Vol. 81(韓國佛敎學會, 2017), 191쪽.

3) 이 글은 구마라집(鳩摩羅什) 역,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을 참고하였다.(이하 『유마경』)

4)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c03-c05)): 隨智慧淨則其心淨。隨其心淨則一切功德淨。是故寶積。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5) 이기운, 「공의 실천적 사상 연구: 維摩經을 중심으로」, 『東國思想』 Vol.22(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生會 1989)

6) 이재수, 「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년)

7) 이대성, 「維摩經 研究」(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년): 강기선(도업), 「『유마경』의 정토사상과 西

과를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정토 구현을 지향하는 『유마경』의 정토사상과 정토 구현의 실천방안인 정토수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아가 『유마경』의 정토사상에 내재된 실천적인 함의를 『유마경』과 『주유마힐경』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데, 『유마경』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승조(僧肇)가 편찬한 『주유마힐경』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II. 『유마경』 정토사상의 특징과 정토수행

1. 『유마경』 정토사상의 특징

『유마경』의 정토사상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특징은 『유마경』의 첫 번째 품인 「불국품」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불국품」에는 한 장자의 아들이 “보살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쭙었을”¹⁰⁾ 때, 부처님이 “중생의 무리가 곧 보살의 부처님 국토”¹¹⁾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설하신 부분이 있다. 즉 중생의 무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이며, 다른 곳에서 청정한 불국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유마경』의 정토사상은 현실 속의 정토를 인정하는 차방(此方) 정토사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洋의 유토피아사상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6) : 이미선(혜장), 『『維摩經』의 淨佛土思想 研究: 「佛國品」을 중심으로』(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 윤성문, 『『維摩經』의 大乘思想과 不二의 實踐行 研究』(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이외에도 유마경이 선종, 염불종, 여타 정토사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橋本 芳契, 『維摩經における淨土系思想-無量壽經との関係-』, 『印度學佛敎學研究』 38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 : 한역(漢譯) 유마경 3본(本)의 번역을 비교한 戸田 宏文, 『維摩經「佛國品」(諸菩薩淨土之行)に於ける諸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12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64) : 유마경이 중국, 일본의 정토 사상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橋本 芳契, 『維摩經の空觀と淨土義-その註維摩における展開-』, 『印度學佛敎學研究』 31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83) 등 많은 연구가 있다.

8) 승조(僧肇)撰,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이하 『주유마경』)

9)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경』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구마라집과 그의 제자였던 승조 등이 주석한 『주유마경』을 참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0)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a17-a18)) : 願聞得佛國土清淨. 唯願, 世尊, 說諸菩薩淨土之行. 한편, 유마경에 나타나는 정토(淨土)는 정불국토(淨佛國土)의 의미로 해석된다.(히라카와 아끼라(平川彰), 「淨土思想の成立」, 『講座大乘佛敎』5, 11쪽(사나다 고우도(眞田康道), 「心淨きに隨いて佛土淨し」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9卷 1號 (通卷77)(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12), 454쪽 재인용)

11)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a21) : 眾生之類, 是菩薩佛土.

그러나 『유마경』의 정토사상에는 다른 성격의 정토사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심(唯心)정토사상과 타방(他方)정토사상의 특징도 있다. 먼저 『유마경』의 정토사상을 유심정토사상으로 보는 경우에 『유마경』의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구절이 근거로 인용되곤 하는데, 이 구절만을 보면,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그대로 청정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즉, 중생이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가지면 다른 노력이나 수행 없이도 불국토가 청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구절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¹²⁾ 그러나 전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관념적인 유심사상을 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체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살은 그의 곧은 마음을 따라서 수행을 시작하게 되고, 수행을 시작함을 따라서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깊은 마음을 따라서 뜻을 조복하게 되고, 뜻을 조복함을 따라서 말과 같이 행하게 되고, 말과 같이 행함을 따라서 회향하게 되고, 회향함을 따라서 방편이 있게 되고, 방편을 따라서 중생을 성취하게 되고, 중생을 성취함을 따라서 불국토가 청정하게 되고, 불국토가 청정함을 따라서 법의 말씀이 청정하게 되고, 법의 말씀이 청정함을 따라서 지혜가 청정하게 되고, 지혜가 청정함을 따라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온갖 공덕이 청정해진다. 그러므로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마땅히 마음을 청정하게 가질 것이니,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부처님의 국토가 청정해진다.¹³⁾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곧은 마음 → 수행을 시작 → 깊은 마음 → 뜻을 조복 → 말과 같이 행함 → 회향 → 방편 → 중생을 성취 → 부처님 국토가 청정 → 법의 말씀이 청정 → 지혜가 청정 → 마음이 청정 → 온갖 공덕이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즉 불국토를 청정하게하기 위해서는 곧은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곧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행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경우에 불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곧은 마음이 불국토를 청정하게하기 위한 근

12)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104-107쪽 참조.

13) 『유마경』(대장장 14권, 538쪽 (b26-c05)) : 菩薩隨其直心。則能發行。隨其發行則得深心。隨其深心。則意調伏。隨意調伏則如說行。隨如說行則能迴向。隨其迴向則有方便。隨其方便則成就衆生。隨成就衆生則佛土淨。隨佛土淨則說法淨。隨說法淨則智慧淨。隨智慧淨則其心淨。隨其心淨則一切功德淨。是故寶積。若菩薩欲得淨土當淨其心。隨其心淨則佛土淨

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승조(僧肇)의 주석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토에 움푹 파인 곳이 없는 것은 곧 마음의 곧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곧 원인 가운데서 과보를 말한 것이니, 오히려 금을 가리켜 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분명한 것이다. ‘곧은 마음’이란 것은 그 바탕이 곧아서 사특한 것이 없음을 이른다. 이 마음이 곧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장을 세워 마련하였다.¹⁴⁾

승조는 『유마경』의 “곧은 마음[直心]이 바로 보살의 정토”¹⁵⁾라는 내용에 대해 위와 같이 풀이하였던 것이다. 승조의 주석을 보면, 곧은 마음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고,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라는 것이다. 즉 승조는 곧은 마음은 정토를 가져오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곧은 마음을 가지면 다른 노력이나 과정이 없이도 바로 정토가 구현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마경』의 유심정토사상은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마경』에 있는 타방정토에 대한 서술도 정토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현실의 정토’라는 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유마경』에 있는 타방정토에 대한 묘사 중에 우선 「향적불품」에 나타나는 관련된 내용은 식사 시간이 되어 사리불 존자가 밥 먹을 생각을 하자, 유마거사가 향기가 으뜸가는 중향국이라고 하는 타방의 불국토를神通력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으며,¹⁶⁾ 나아가 이 중향국에서 유마거사가 밥을 가져다가 대중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 구절 외에도 「견아촉불품」에는 묘희라는 불국토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리불존자가 유마거사에게 어떤 국토에서 왔는가를 묻자, 유마거사는 무동부처님이 계시는 묘희라는 매우 청정한 불국토에서¹⁷⁾ 중생을 교화하

14)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5쪽 (b19-b22)) : 土無滂曲乃出于心直, 故曰直心是菩薩淨土也。此則因中說果, 猶指金為食, 直心者, 謂質直無諛, 此心乃是萬行之本, 故建章有之矣。

15)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01)) : 直心是菩薩淨土

16) 『유마경』(대정장 14권, 552쪽 (a09-a16)) : 時維摩詰即入三昧。以神通力示諸大眾。上方界分過四十二恒河沙佛土。有國名衆香。佛號香積。今現在。其國香氣比於十方諸佛世界人天之香最爲第一。彼土無有聲聞辟支佛名。唯有清淨大菩薩衆。佛爲說法。其界一切皆以香作樓閣。經行香地苑園皆香。其食香氣周流十方無量世界。

17) 『유마경』(대정장 14권, 555쪽 (b18-b26)) : 於是維摩詰心念。吾當不起于座接妙喜國。鐵圍山川溪谷江河。大海泉源須彌諸山。及日月星宿。天龍鬼神梵天等宮。并諸菩薩聲聞之衆。城邑聚落男女大小。乃至無動如來及菩提樹諸妙蓮華。能於十方作佛事者。三道寶階從閻浮提至忉利天以此寶階諸天來下。悉爲禮

기 위하여 이 국토에 왔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유마경』의 타방 불국토에 대한 설명은 불교의 세계관 자체가 삼천대천세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 이곳의 사바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타방 불국토에 대한 설명은 「향적불품」에서 볼 수 있듯이 배가 고프는 대중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밥을 구해주는 유마거사의神通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견아촉불품」의 내용은 유마거사의神通력을 보여줌과 함께 현실의 사바세계보다 좀 더 이상적인 정토가 있음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¹⁸⁾ 것이어서, 『유마경』에 나타나고 있는 타방정토에 대한 묘사는 현실에서 정토 구현이 가능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토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마경』의 정토사상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사바세계가 곧 정토임을 설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함은 불국토가 청정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설하고 있지만, 이는 곧은 마음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이 시작됨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타방정토에 대한 『유마경』의 설명도 현실에서 정토가 구현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유마경』의 정토수행

이러한 『유마경』의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면, 『유마경』에는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로서, 우선 세 가지 마음을 설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直心]이 정토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은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외에도 깊은 마음[深心]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菩提心]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보살이 정토를 구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 아침 안 하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공덕을 구축한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

敬無動如來聽受經法。闍浮提人。亦登其階。上昇忉利見彼諸天。妙喜世界。

18) 이재수, 앞의 논문, 93쪽.

할 때에 대승의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¹⁹⁾

이와 같이 『유마경』에는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세 가지를 보살의 정토라고 보고 있는데, 즉 이 세 가지 마음이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 중 곧은 마음에 대하여 승조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마음이 곧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한 후에는 행법을 실천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 가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보살의 곧은 마음이다. 이 장에서 만 가지 행이 차례대로 나아감에 있어 서로 은미하게 원인이 되지만 곧은 마음이라는 원인을 시작으로 하여 정토라는 과보에서 끝이 나는 것을 밝혔다. 비유하자면, 나무를 심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성한 큰 나무 되는 것과 같이 곧은 마음의 행법이 곧 처음 그 싹을 틔움으로 해서 만 가지 행이 그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다.²⁰⁾

곧은 마음이 만 가지 행동과 실천의 근간이 되고, 정토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승조는 깊은 마음에 대하여 “마음에 모든 덕을 심은 것이 깊고도 견고하여 뽑기가 어렵다.”²¹⁾고 설명하고 있다.

곧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되 곧은 마음이 더욱 깊게 뿌리 내리면, 그 마음을 없애기가 어렵고, 나아가 모든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함께 곧은 마음, 깊은 마음에 대하여 승조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

팔만 가지 행동을 하면서 천하의 모든 중생을 아울러 태우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니 대승의 마음이다. 앞의 세 가지 마음이 곧 처음 배우는 이의 행업(行業)의 차례인 것이다. 무릇 큰 도를 흥포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그 마음을 곧게

19)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01-b04))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謫衆生 來生其國。深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具足功德衆生來生其國。菩提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大乘衆生來生其國。

20)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6쪽 (c14-c18)) : 夫心直則信固。信固然後能發迹造行。然則始於萬行者其唯直心乎。此章明行之次漸。微著相因足以始于直心終於淨土。譬猶植栽絲髮其茂百圍也。直心樹其萌。衆行因而成故言隨也。

21)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5쪽 (c09-c10)) : 樹心衆德深固。故難拔深心也

하고 마음이 이미 진실로 굳게 된 후에는 수행에 들어감이 능히 깊게 하고 들어간 수행이 이미 깊어지면 능히 널리 윤행함에 끝이 없어야 하니, 이것이 세 가지 마음의 순서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춘 후에는 다음으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른 본(本)에서는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도 한다.²²⁾

여기에서 승조는 『유마경』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菩提心]을 ‘대승의 마음’[大乘心]으로 바꾸어서 설명하면서, 곧은 마음과 깊은 마음과 대승의 마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처음 배우는 이의 행업의 차례이며, 또한 곧은 마음을 가진 후에 깊은 마음을 닦고, 깊은 마음을 닦은 후에 대승의 마음을 닦는 것이 세 가지 마음을 닦는 순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승조는 다른 본(本)에는 ‘대승의 마음’이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승조가 ‘대승의 마음’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마경』 「보살품」의 “보리(菩提)로서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킨다.”²³⁾는 내용에 대한 주석에서 승조가 “보리(菩提)라는 것은 널리 구제하는 도(道)이다. 이 때문에 보리(菩提)를 실천하여 자애심을 일으키게 되면 한 생각, 한 때에 이로운 바가 한량이 없다.”²⁴⁾고 설명한 부분에서도 승조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과 ‘대승의 마음’을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승조가 천하의 모든 중생을 태우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는 대승의 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은 차례대로 닦아나가는 마음으로서 정토를 구현할 수 있는 만 가지 실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을 갖추고 나면,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데,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경전에는 우선 육바라밀이 제시되고 있다. 육바라밀 수행을 이어서 순서대로 사무량심, 사섭법, 방편, 37조도품, 회향심, 여덟 가지 어려움을 없앴을 말하는 것,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의 그릇됨을 헐뜯지 않음, 열 가지 착한 행 등이 서술되고 있다.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초기불교 이래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온 제반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을 검색해보면, 정

22)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5쪽 (c14:-c19)) : 乘八萬行兼載天下不遺一人大乘心也。上三心是始學之次行也。夫欲弘大道要先直其心。心既真直然後入行能深。入行既深則能廣運無涯。此三心之次也。備此三心然後次修六度。別本云。直心深心菩提心。

23)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c10) : 謂以菩提起於慈心

24)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68쪽 (c03-c04)) : 菩提者弘濟之道也。是以爲菩提而起慈心者。一念一時所益無際矣

토구현의 수행법 중에서 곧은 마음, 깊은 마음,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세 가지 마음은 초기경전에서 그 용어가 발견되지만²⁵⁾ 초기경전에 세 가지 마음이 수행법으로 함께 등장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회향심도 초기경전에서 용어가 몇 차례 사용되고²⁶⁾ 있지만,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승경전에서부터이다. 특히 육바라밀은 초기대승불교 시대의 대표적인 경전인 반야경전에서부터 설해진 수행법이다.²⁷⁾ 따라서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과 육바라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초기불교시대의 수행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초기불교시대의 수행법과 육바라밀과 같은 초기대승불교시대의 수행법이 설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과 같은 수행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마음과 회향심은 아마도 초기대승불교시대에 형성된 수행법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유마경』의 성립이 초기대승불교시대인 기원후 1세기 후반 이전으로²⁸⁾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유마경』에는 초기불교시대부터 초기대승불교시대까지의 수행법이 정토수행방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해탈과 열반을 위한 수행이 바로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행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토 구현을 위한 보살의 구체적인 실천과 수행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유마경』은 다시 한 번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곧은 마음은 모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되며, 곧은 마음을 토대로 하여 온갖 공덕이 청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불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이 보면, 『유마경』의 정토사상은 현실 속에서의 정토 구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토 구현의 수행은 바로 초기불교 이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곧은 마음을 근본적인 토대로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25)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http://21dtk.l.u-tokyo.ac.jp/SAT/satdb2015.php>)을 검색해보면, 세 가지 마음 중에 직심(直心)은 초기 경전인 『雜阿含經』「修習住經」, 『雜阿含經』「釋氏經」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지만, 심심(深心)은 『別譯雜阿含經』 등에서 일부 발견되며, 보리심(菩提心)은 『雜阿含經』「慧根經」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세 가지 마음이 함께 언급되는 것은 초기 경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26) 『長阿含經』「世記經」, 『雜阿含經』「彈琴經」등에서 발견된다.

27) 中村元 編著, 『佛教經典散策』(東京: 東京書籍, 1979), 16쪽.

28) 위의 책, 155-156쪽

29)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26-c05)) 앞의 주석 13) 참조.

Ⅲ. 『유마경』 정토수행의 실천

1. 정토수행과 곧은 마음

『유마경』의 정토수행 방법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곧은 마음[直心]이다. 곧은 마음이 근본이 되어 깊은 마음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닦게 되고, 이 세 가지 마음이 갖추어진 후에 육바라밀을 비롯한 정토수행을 실천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마경』에는 “곧은 마음을 가지면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³⁰⁾는 내용이 있고, 이에 대해 승조는 “마음이 곧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한 후에는 행법을 실천하는 것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만 가지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오직 보살의 곧은 마음”³¹⁾이라고 주석하고 있는데, 곧은 마음이 모든 수행의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곧은 마음은 초기경전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초기불교시대에는 수행법으로서 정착되지 않았던 것인데, 『유마경』에는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초기경전에서 곧은 마음이 등장하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성스러운 제자가 계율과 보시와 들음과 지혜를 닦고 천상세계를 생각하면, 탐·진·치를 벗어나서 마음이 바르고 곧게 되어 법의 깊은 이치를 알게 된다는³²⁾ 내용, 비구가 여자의 꼬임에도 그 속셈을 모르고 순진하게 넘어가는 곧은 마음을³³⁾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으면서 곧은 마음으로 생각을 매어 근심을 없앤다는³⁴⁾ 내용, 만약 비구에게 아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아 순박하고 곧은 마음이 생기면 부처님은 그에게 법을 설하며, 법을 많이 듣고 깨우치면 곧은 마음이 생겨 진실이면 진실인 줄 알고 진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닌 줄 알게 된다는³⁵⁾ 내용, 유학(有學)과 무학(無學)의 수행자는 그 마음이 정직하고

30)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26-b27)) : 菩薩隨其直心。則能發行。

31)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6쪽 (c14-c15)) : 夫心直則信固。信固然後能發迹造行。然則始於萬行者其唯直心乎。

32) 『잡아함경』「수습주경」(대정장 2권, 238쪽(a25-a29)) : 我今亦當行此戒施聞慧。聖弟子如是念天事者。不起貪欲瞋恚愚癡。其心正直緣彼諸天。彼聖弟子如是直心者。得深法利。得深義利。得彼諸天饒益隨喜。

33) 『잡아함경』「매색경」(대정장 2권, 137쪽(c01-c05)) : 爲女人賣色自活。時有比丘。於迦葉佛所出家。彼女人以不清淨心。請彼比丘。比丘直心受請。不解其意。女人瞋恚。以不淨水。灑比丘身。

34) 『잡아함경』「묘색경」(대정장 2권, 160쪽(a15-a17)) : 持戒明智慧 自修習正受 正直心繫念 熾然憂悉滅 得平等智慧 其心善解脫

35) 『잡아함경』「여래력경」(대정장 2권, 189쪽(a22-a27)) : 02.0189a22: 意解作證。悉皆如來無畏智所生。若比丘來爲我聲聞。不諂不僞。質直心生。我則教誡教授爲其說法。晨朝爲彼教誡教授說法。至日中時。得

진실하여 복 받이 된다는³⁶⁾ 내용, 억년동안 복을 지어도 곧은 마음으로 공경함에는 그 복이 미치지 못한다는³⁷⁾ 내용 등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곧은 마음의 의미를 보면, 첫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순화된 상태, 둘째,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 상태, 셋째, 아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마음 상태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기경전에 등장하는 곧은 마음의 의미를 보면 수행으로 청정하고 지혜롭게 된 마음이라는 의미와 함께 진리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법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기경전에서 곧은 마음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모두 버리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임을 알 수 있다.³⁸⁾ 그런데, 『유마경』에서는 곧은 마음을 “아첨하지 않는 마음”과 같은 의미로 보고³⁹⁾ 있으며, 또한 승조는 곧은 마음을 “안으로는 참되고 곧으며 밖으로는 공허하고 거짓됨이 없어서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고⁴⁰⁾ 보았다. 이와 같이 『유마경』과 승조의 주석에서 곧은 마음을 모든 정토수행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초기경전 이래의 곧은 마음에 내포되어 있는 실천적 함의가 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⁴¹⁾

勝進處。若日暮時。爲彼教誡教授說法。至晨朝時。得勝進處。如是教授已。彼生正直心。實則知實。不實知不實。

36) 『잡아함경』「복전경」(대정장 2권, 189쪽(c16-c18)) : 世有學無學 大會常延請 正直心眞實 身口亦復然是即良福田 施者獲大果

37) 『잡아함경』「사사경」(대정장 2권, 338쪽(b09-b10)) : 若人於世間 億年設福業 於直心敬禮 四分不及一

38) 이런 곧은 마음의 의미는 범어와 티베트어를 통해 구마라집, 현장, 지겸의 한역(漢譯) 『유마경』의 번역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현장이 사용한 용어[純淨意樂]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토다 히로후미(戶田宏文), 「維摩經「佛國品(諸菩薩淨土之行)」に於ける諸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2卷 2號 (通卷24)(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64.3), 179쪽 참조)

39)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01-b02))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謫衆生 來生其國。

40)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63쪽 (c26-c27)) : 直心者。謂內心眞直外無虛假。斯乃基萬行之本。

41) 그런데 『대승기신론』에는 정직심(正直心), 심중심(深重心), 대비심(大悲心)을 믿음으로 발심을 성취하는 세 가지 마음으로 설명하면서 정직심을 진여법(眞如法)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마경』의 직심에 대한 관점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대승기신론』(대정장 32권, 589쪽(a15-a18)) : 若遇惡緣或時退墮二乘地故。復次信成就發心。略說有三。一發正直心。如理正念眞如法故。二發深重心。樂集一切諸善行故。三發大悲心。願拔一切衆生苦故。)

2. 정토수행과 중생교화

1) 수기적(隨機的) 교화

『유마경』에 나타나는 보살의 정토 구현을 위한 실천과 수행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는 수기적(隨機的)인 교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마경』의 수기적인 교화는 석가모니 이래 불교의 교육적 방편이었다.⁴²⁾ 「불국품」에는 “중생의 부류가 바로 보살의 부처님 정토”⁴³⁾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부처님의 정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물음에 부처님은 먼저 정토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정토란 다름 아니고 여러 중생들이 바로 보살의 부처님 정토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중생들이 바로 보살의 부처님 국토”라는 구절에 대해 승조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무릇 지인(至人)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 상(象)이 없이 사물에 감응하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냄에 항상 유지되는 몸이 없는데, 하물며 국토에 일정함이 있겠는가? 무릇 모든 유정 중생이 만 가지로 달라서 업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이에 따른 교화가 달라 그들의 인과보응 또한 같지 않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깨끗한 업을 수행한 자는 보옥(寶玉)으로써 보응해 주고, 더러운 업을 쌓은 자는 모래와 자갈로써 보응해 준다. 따라서 아름다운 업과 악한 업이 저들 중생으로부터 나오니, 세존에게는 일정한 국토가 없다. 따라서 일정된 것이 없는 국토만이 곧 진정한 국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중생에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무리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라고 말할 수 있다. 혹자들은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이 중생에게 관계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생들의 과보에 따른 국토이고, 여래의 국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는 대개 보응(報應)의 수순한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⁴⁴⁾

승조는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마음은 비어 있어 일정하게 고정된 모습에 대한

42)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진리와 방편의 역동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宗教敎育學研究』 Vol.25(韓國宗教敎育學會, 2007.12) 27-43쪽

43)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a21) : 佛言。寶積。衆生之類是菩薩佛土。

44)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4쪽 (b15-b23)) : 夫至人空洞無象。應物故形。形無常體。況國土之有恒乎。夫以群生萬端業行不同。殊化異被致令報應不一。是以淨者應之以寶玉。穢者應之以沙礫。美惡自彼。於我無定。無定之土乃曰眞土。然則土之淨穢于衆生。故曰衆生之類是菩薩佛土也。或謂土之淨穢繫于衆生者。則是衆生報應之土。非如來土。此蓋未喻報應之殊方耳。

집착이 없으므로 국토에도 일정한 모습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국토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중생의 업에 관련되어 있으며, 중생이 보살의 부처님 국토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유마경』과 『주유마경』의 내용을 보면,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디에 집착함이 없이 중생의 업과 근기에 따라서 정토를 구현하는 수행과 실천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어지는 『유마경』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은 보살의 수기적(隨機的) 교화의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 받을 중생을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조복 받을 중생을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중생이 어떤 국토로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는가를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하며, 중생들이 어떠한 국토로써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는가를 따라 부처님 정토를 취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취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⁴⁵⁾

교화를 받고 조복을 받을 중생들을 따라서 보살은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며, 또한 중생들을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고 보살의 근기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는데, 이는 오직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와 적성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2) 정신적 교화의 중요성

이렇게 보살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의 정토를 선택하는 경우에 『유마경』은 물질적인 보시보다는 정신적인 교화가 더욱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살품」에는 유마거사가 장자의 아들인 선덕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보다는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고 설하는⁴⁶⁾ 내용이 있는데, 승조는 유마거사의 법을 보시하는 모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5)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a18-a26)) : 所以者何。菩薩隨所化衆生而取佛土。隨所調伏衆生而取佛土。隨諸衆生應以何國入佛智慧而取佛土。隨諸衆生應以何國起菩薩根而取佛土。所以者何。菩薩取於淨國。皆爲饒益諸衆生故。

46) 『유마경』(대정장 14권, 543쪽 (c01-c09)) : 佛告長者子善德。汝行詣維摩詰問疾。善德白佛言。世尊我不堪任詣彼問疾。所以者何。憶念我昔自於父舍設大施會。供養一切沙門婆羅門及諸外道貧窮下賤孤獨乞人。期滿七日。時維摩詰來入會中。謂我言。長者子。夫大施會不當如汝所設。當爲法施之會。何用是財施會爲。我言居士。何謂法施之會。法施會者。無前無後。一時供養一切眾生。是名法施之會。

재물로써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으로는 일시에 두루 다 베풀 수 없으며, 모든 지방의 사람들을 일시에 모두 다 공양할 수 없다. 그래서 모두를 회통하여 한량없이 보시하는 것은 가득 채우면서도 빠뜨림이 없어야 하고, 법의 혜택을 입는 자 역시 때가 없이 두루 덮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을 보시하는 모임은 능히 지역의 경계에 제한 없이 한 번 모임을 가짐에 그 보시의 도(道)가 적시지 않음이 없으며, [보시하는 자 또한] 마음을 비우고 덕을 가슴에 가득 품으므로 대중이 저절로 손님이 되어 오는 것이다. 어찌 물거품과 같은 작은 혜택을 주면서 강과 바다와 같은 큰 이익을 버리겠는가. 이는 일시의 법의 공양을 버리고 때의 앞과 뒤를 분별하여 설치하는 세속의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이다.⁴⁷⁾

법을 보시하는 모임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널리 보시할 수 있으므로 재물을 보시하는 모임보다 공덕이 커서 바다와 같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교화가 중생에게 더욱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신적인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신적인 교화가 물질적인 보시보다 중요하다고 설하고 있지만, 『유마경』이 물질적인 보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음은, 밥 먹을 생각을 하는 대중들에게 유마거사가 중향국이라고 하는 타방의 불국토에서 밥을 가져다가 주었다는 내용⁴⁸⁾ 등을 보면 유추할 수 있다.

3) 보살의 솔선수범

『유마경』에 나타나는 중생 교화의 내용에는 보살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곧은 마음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불국품」 가운데 곧은 마음 → 수행을 시작 → 깊은 마음 → (중략) → 마음이 청정 → 온갖 공덕이 청정이라는⁴⁹⁾ 순서로 곧은 마음이 어떻게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보면, 곧은 마음은 바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고, 수행을 통하여 깊은 마음을 얻게 되고 나아가 중생을 성취시키고 부처님 국토를 청정

47)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68쪽 (b09-b15)) : 夫以方會人, 不可一息期, 以財濟物, 不可一時周, 是以會通無際者, 彌綸而不漏, 法澤冥被者, 不易時而周覆, 故能即無疆為一會, 而道無不潤, 虛心懷德, 而萬物自賓, 曷為存濡沫之小惠, 捨夫江海之大益, 置一時之法養, 而設前後之俗施乎.

48) 『유마경』(대정장 14권, 552쪽 (a09-a16)) 앞의 주석 16) 참조

49)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26-c05)) 앞의 주석 13) 참조.

하게 하는 과보를 가져옴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곧은 마음을 가진 보살은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술선수범을 보이게 되고, 중생들도 곧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보살을 따르게 되고 부처님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술선수범하는 것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부처님 국토가 청정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는 승조의 주석 내용에도 나타난다. 즉 승조는 『유마경』의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난다.”⁵⁰⁾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첨하지 않는 곧은 마음은 한결같은 행동의 다른 이름이다. 보살의 마음이 이미 곧으면 저들 중생을 교화하여 자기와 함께 [곧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化彼同己), 보살 자신의 국토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저들 중생으로 하여금] 함께 행동하여 모이게(同行斯集) 된다. 이것이 보살과 중생의 교화의 인연을 밝혀 서로 미치게(化緣相及) 되므로 그 과보 또한 서로 연대하여 부처님 국토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⁵¹⁾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면 한결같은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중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중생들도 곧은 마음을 가지게 하며(化彼同己), 중생들이 함께 행동하여 모이게 하며(同行斯集), 나아가 교화의 인연을 밝혀 서로 미치게 한다는(化緣相及) 것이다. 즉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행동을 하는 술선수범을 하면 중생들도 곧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곧은 마음을 가진 중생들도 곧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서, 보살과 중생이 서로 함께 행동하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되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살과 중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과정은 보살의 술선수범으로서의 교화가 중생을 이끄는 역할에서 시작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곧은 마음은 정토를 구현하는 실천과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살이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한결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살의 한결같은 행동이 중생에게 술선수범을 보이게 되고 마침내 중생을 교화하여 정토를 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50) 『유마경』(대정장 14권, 538쪽 (b01-b02)) : 直心是菩薩淨土。菩薩成佛時不謔衆生來生其國。

51) 『주유마경』(대정장 38권, 335쪽 (b23-b26)) : 肇曰。不謔直心一行異名也。菩薩心既直化彼同己。自土既成故令同行斯集。此明化緣相及故果報相連。則佛土之義顯也。

IV. 결론

『유마경』의 정토사상은 정토를 사바세계에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유마경』에는 유심정토와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심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모든 실천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곧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타방정토에 관련된 내용은 삼천大千세계라는 불교의 세계관을 전제하면서, 유마거사의 신통력을 드러내는 취지와 같은 요인들에서 서술된 것이므로 『유마경』의 현실적인 정토사상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정토를 구현하는 정토수행의 내용을 보면, 초기불교 이래의 불교 수행법이 망라되어 있어서 정토수행은 결국 깨달음을 얻어 해탈하고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마경』의 정토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유마경』의 정토수행은 보살이 우선 곧은 마음을 강조하였는데, 곧은 마음은 곧 모든 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승적 수행으로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정토로 이끌기 위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교화를 펼칠 것을 설하였으며, 재보시보다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보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승조는 『주유마경』에서 보살은 천하의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곧은 마음으로 중생에게 술선수법을 보여서 보살과 중생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승적 수행으로 정토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문헌

- 강기선(도업), 『『유마경』의 정토사상과 西洋의 유토피아사상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Vol. 1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6.
- 김용표, 「붓다의 교육원리와 수기적(隨機的) 교수법-진리와 방편의 역동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宗教教育學研究』 Vol.25, 韓國宗教教育學會, 2007.12.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編著, 『佛敎經典散策』, 東京: 東京書籍, 1979.

- 대정장 2권, 『잡아함경』
- 대정장 14권, 『유마힐소설경』
- 대정장 32권, 『대승기신론』
- 대정장 38권, 『주유마힐경』
- 박경준, 『불교사회경제사상』,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사나다 고우도(眞田康道), 「心淨きに隨いて佛土淨し」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9卷 1號 (通卷77),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
- 원영상, 「유마경과 정토, 그리고 현대불교」 『韓國佛敎學』Vol. 81, 韓國佛敎學會, 2017.
- 윤성문, 「『維摩經』의 大乘思想과 不二的 實踐行 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 이기운, 「공의 실천적 사상 연구 : 維摩經을 중심으로」, 『東國思想』Vol. 22, 東國大學校 佛敎大學 學生會 1989.
- 이대성, 「維摩經 研究」,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 이미선(혜장), 「『維摩經』의 淨佛土思想 研究: 「佛國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 이재수, 「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 츠보이 순에이(坪井俊暎) 저, 한보광 역, 『淨土敎概論』, 서울: 弘法院 1993.
- 토다 히로후미(戸田宏文), 「維摩經「佛國品 (諸菩薩淨土之行)」に於ける諸語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12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64.
- 하시모도 호우게이(橋本 芳契), 「維摩經における淨土系思想-無量壽經との關係-」, 『印度學佛敎學研究』 38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0.
- _____, 「維摩經の空觀と淨土義-その註維摩における展開-」, 『印度學佛敎學研究』 31卷 2号, 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83.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20일 심사일: 2018년 2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연구자소개: 장성우

① 전공: 응용불교 / 소속: 동국대학교

② 관심영역: 불교학과 경영학의 학제적 연구, 불교사회경제사상, 초기불교

③ 주요논저: 「初期佛教의 經營思想 一考察」, 「4차 산업혁명과 불교의 경제윤리」

④ E - mail : 371008@naver.com

연구자소개: 장병한

① 전공: 한문학, 불교학 / 소속: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② 관심영역: 구마라집, 승조의 불교학

③ 주요논저: 「다산학에서의 불교 교학의 의미와 공부론」, 「다산 정약용의 佛教詩에 관한 일고찰」, 「僧肇 選『注維摩詰經』에 나타난 方便의 理解-구마라집과 승조의 주해 비교를 중심으로-」, 「僧肇의 佛·儒·道家의 連繫 認識과 淨土論에 대한 일고찰-승조 選『注維摩詰經』, 「佛國品」의 註解 分釋을 중심으로-」, 「僧肇 選『注維摩詰經』, 「弟子品」에 대한 연구-승조의 老莊 思想의 攝用 및 小乘 批判과 大乘 讚揚論을 중심으로-」

④ E - mail : jbh0724@ysu.ac.kr

Abstract

The Pure Land Thought and The Pure Land Practice's Cultivation of
the Vimalakīrtinirdeśa Sūtra

Jang, Sung-Woo · Jang, Beoung-han
Dongguk University · Youngsan University

The pure land thought of the Vimalakirtinirdesha Sutra is a practical thought in order to realize the pure land in this world. Although, in the Vimalakirtinirdesha Sutra, some sentenc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ure land of the immaculate mind and the pure land limited to a certain location are found, but related sentences with the pure land of the immaculate mind only emphasize the honest and undefiled mind as the basic cause of the every practice and related sentences with the pure land limited to a certain location are narrated for the purpose of revealing the supernatural power of householder Vimalakirti and other purposes, so that Vimalakirtinirdesha Sutra does not deny the practical pure land thought. Furthermore, the sutra's discipline methods for the pure land as the practices and actions realizing the pure land include many discipline methods until early Buddhism, therefore the pure land of the Vimalakirtinirdesha Sutra means the enlightenment through practices.

Meanwhile, the Pure Land Practice of Vimalakirtinirdesha Sutra emphasizes the honest and undefiled mind above all, because it is the basis of all practice's cultivation. Then, sutra says that offering of teaching the Dharma is more important than offering material aid. And, as the Mahayana Buddhist practices, the pure land discipline methods of Vimalakirtinirdesha Sutra highlight not only edification method that follows the sentient beings's capability but also Bodhisattva needs to take the lead by honest and undefiled mind, and as a result, Bodhisattva & sentient beings attain the enlightenment together.

Key words : Vimalakirtinirdesha Sutra, The pure land thought, disciplines for the pure land, enlightenment, edification methods, the honest and undefiled mind